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11월 29일(주일) 제1076호



유치부 아이들의 소그룹 활동.

“우리 선생님이 되어 주세요”

12월 6일까지 차세대 및 장애인 부서 교사 모집 교사 759명 필요 ... 등록교인 및 세례교인 누구나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사를 모집한다. 오늘(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캠퍼스별로 차세대 교사 모집 행사가 실시된다. <관련기사 6면>

차세대사역본부는 “현재 차세대 교사 759명(서빙고 255명, 양재 184명, 부천 61명, 수원 90명, 대전 45명,

인천 27명, 남양주 28명, 강동 19명, 평택 15명, 양지 15명, 도곡 20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성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배공동체 사랑부 교사도

함께 모집한다.

차세대 교사가 되려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자 세례를 받은 성도여야 한다. 다음세대에게 건강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신앙전수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더욱 좋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하고자하는

성도는 오늘(29일)과 다음 주일(12월 6일)에 국내 10개 캠퍼스 로비에 설치되는 ‘차세대 홍보부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차세대 교사로 지원하면 ‘신입교사대학’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신입교사 대학은 차세대 교사로서의 사명과 비전을 다지고, 온누리교회 차세대를 이해하는 장이다.

신입교사 대학에서는 온누리교회 차세대 소개 및 영역소개, 신입교사

오리엔테이션, ‘Jump to Jesus’ 등의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에 신앙을 전수하는 교사를 양육하고 있다.

차세대사역본부장 노희태 목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차세대 양육을 함께할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서빙고 02-3215-3525

양재 02-570-7548

사랑부 02-3215-3661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2015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508명 임직 ... 12월 5일 오후 4시 장로장립예배

지난 2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15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직대상자 508명이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거듭났다. 명예권사 19명, 권사 165명, 남자 안수집사

119명, 여자 안수집사 205명이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임직자들에게 “질투하지 않고, 낮은 자, 협력하는 리더십이 되어달라”고 권면했다.

임직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것을 서약했다.

명경숙 권사(인천 믿음), 이성록 집사(양재 서초D), 최혜숙 집사(서빙고 강촌)가 대표해 임직증서를 받았다. <2면으로 이어짐>

한편 12월 5일 오후 4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2015 장로장립예배’를 드린다. 이날 31명이 장로로 장립된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온누리 선교사,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수상

박세업 선교사 대통령상, 한영훈 선교사 국무총리상

온누리교회 파송선교사 박세업 선교사와 한영훈 선교사가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난 25일 정부 무상원조 전담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개최한 ‘제10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에서 박세업 선교사가 민간부문 대통령상을, 한영훈 선교사가 정부부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박세업 선교사는 모로코에서 결핵퇴치 및 학교보건사업을 하고 있다. 모로코, 베트남, 몽골 등지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다. 한영훈 선교사는 15년 동안 몽골 빈민가에서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다

명예권사 19명, 권사 165명, 남자 안수집사 119명, 여자 안수집사 205명

2015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

508명이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 지난 28일 2015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에서 508명이 직분을 받았다. 명예권사 19명, 권사 165명, 남자 안수집사 119명, 여자 안수집사 205명이다.

2015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는 당회서기 정과중 장로의 대표기도로 시작됐다. 이재훈 담임목사의 설교, 임직 서약 및 안수기도와 선포, 김영미 권사의 축가, 손봉호 교수·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축하영상 상영, 유중근 권사(전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축사, 정호옥 목사의 권면, 임직증서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임직자들에게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질투하지 않고,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봉호 교수와 유기성 목사는 축하영상에서 “주님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달라”고 축복했다.

유중근 권사는 축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자”고 했다.

정호옥 목사는 실제적 권면을 했다. 직분자들에게 “너그럽고, 인자하고, 사랑이 있고, 노하기를 더디 하는 인자한 사람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무엇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



임직자들이 안수를 받고 있다.

선을 다해달라고 권면했다.

2015 권사·안수집사 임직예배는 축복의 한 마당이었다. 임직을 축하하려 가족들과, 공동체 식구들, 교역자들이 총출동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

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권사와 안수집사들이 되기를 소망했다.

2015년 임직대상자들은 9월 5일부터 9주 동안 진행된 임직자스쿨을 수료했다. 신약통독, 새벽기도 20일 이상, 독서보고서(필독서 3권),

큐티말씀 묵상노트 작성, 봉사활동(25시간) 등의 개인영성훈련을 마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임직 소감은 온누리신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news.onnuri.org).



이재훈 목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의 리더십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자리에 서 계십니다. 개인의 종교적 성취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헌신하고, 수고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임직은 더 많은 수고와 헌신, 낮은 곳으로 향하는 자리로의 부르심입니다. 요나단의 영성과 리더십을 가슴에 새기고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소중한 가치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는 길을 갔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반면교사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질투심에서 시작됐

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자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사울의 행동은 질투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지도자들의 질투심에서 비롯된 사건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에도 수많은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은 교리적 명분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살펴보면 아닙니다. 지도자의 질투와 자기중심적 감정 때문에 분열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의 잘못된 질투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를 질투하거나 불필요한 죄를 짓는 사울의 영성이 우리를 지배하면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서열이나 조직, 인간의 성취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십자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직분 받는 것을 신앙의 가치가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축복했고, 왕자로써 언약을 맺고 그를 보호해줬습니다. 예수님

요나단 리더십

삼상 14:1~7

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아야

요나단은 용기 있게 위험한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습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든 청년과 함께 적진으로 가는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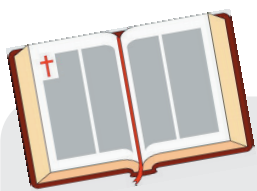
첫째, 요나단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준 것을 가지고 움직였습니다. 600명의 군사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 다. 자신과 함께 있는 한 사람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과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위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사역에 충성할 때 참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둘째,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움직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세운 계획이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이뤄질 수도 있고,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고, 희생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믿고 나아갔 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열에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고집이 있습니다. 믿음과 고집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시련이 있어도 꿋고 나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임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온누리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방향을 이끌어 가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잘못된 고집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꺼이 내려놓는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에 질투나 다툼, 분열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고, 예수님을 이 시대에 가장 잘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 정리 김미림 기자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넉넉히 이깁니다

사도행전 5:29~42

“성령님이 사로잡은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넉넉히 이깁니다.”

요즘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을 보면 독 있는 민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으면서 자신들이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종교와 신앙의 탈을 쓰고 절대화 되는 모순과 위험입니다. 그들은 악한 신념을 종교와 신앙의 탈을 쓰고 절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은 아랍지라도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그들도 무고한 사도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들과 이 시대를 위협하는 테러집단의 원리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도 기쁜 소식, 새 생명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면서 자신들의 이념과 죄악을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절대화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유대지도자들

“그러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의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행 5:17-18).

사도들이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도들을 존경하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영향력이 예루살렘에 가득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을 관할하고 있던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가 간파했습니다. 그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 빌라도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만들어내는지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분열과 다툼을 보면 겉으로는 교리의 싸움이고, 명분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깊은 곳에 들어가보면 주도적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시기심과 질투가 있습니다. 유대지도자들의 시기심이 사도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자신 안에 있는 죄악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죄가 신앙의 탈을 쓰면 무서운 괴물이 탄생합니다. 요즘 테러집단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념을 믿고 자신들의 죄악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온 예루살렘을 너희 가르침으로 가득 채우고 이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하는구나’”(28절).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핵심내용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다. 우리가 바로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뜨끔 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재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으로 빌라도를 압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불법재판의 책임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 사도들은 역사의 진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고,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넉넉히 이기는 사도들

누가 지적하는 또 다른 그들의 문제는 잘못된 이념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잡아 가둔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다윗시대 사독의 후예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부활을 믿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더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믿음을 잃어 살아가 수 없습니다. 무신론자들은 강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어떤 이념이나 철학을 믿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믿음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역사적 사실이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는 바대로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을 신앙으로 포장하고,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이념을 절대화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을 핍박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도리어 힘 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모습에는 활기가 있었고, 그들의 메시지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샘솟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로마서 8장 35-37절을 읽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롬 8:35-37).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죄를 신앙으로 포장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절대화하고, 세상의 권력으로 억누르는 그들을 사도들은 넉넉히 이기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권력으로 맞서 싸워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힘없고, 연약하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으로 때리면 맞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는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도들에게 성전으로 가서 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감옥에서 기적적인 풀려남을 경험하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가서 담대하게 새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전은 당시 종교의 상징입

니다. 유대교는 성전중심의 종교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지어졌지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 가장 쓸모없는 종교의 상징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건물 자체를 우상화하고, 건물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성전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성전은 옛 종교의 율타리일 뿐입니다. 그 성전에서 사도들이 새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들을 붙잡아다가 심판대 앞에 세웠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 삼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지는 선고는 그냥 집행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클라이맥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용서를 주시려고 예수를 그분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행 5:29-32).

사도들은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분노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공회원이 타일러서 채찍으로 때리고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고 풀려난 후에도 날마다 성전과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고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이름을 위해 모욕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는 기뻐하며 공의회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41~42절).

어떤 상황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 어떤 핍박도 그들을 중지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욕과 핍박을 즐거워하며 넉넉히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팔복의 마지막 복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3면에 계속)

하나님 역사에서

해외 비전교회의 현재와 미래

1. 일본 비전교회
2. 아부다비 비전교회
3. 미주 비전교회

온누리교회는 국내 10개 캠퍼스뿐만 아니라 해외 4개 권역에 30개 비전교회를 두고 있다. 그중 미주지역에 절반에 가까운 13개 교회가 있다. 그만큼 미주지역 해외비전교회의 역할이 크고,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영적인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위기에 봉착했다. 지난 6월 미 연방법원이 동성애 합헌 결정을 내렸고, 종교차별을 금지한다면서 사실상 기독교를 차별하는 행태들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신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없고, 다음세대들의 교회 이탈 현상도 가속화하고 있다. 미주 지역 비전교회들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얼바인 온누리교회 권혁빈 목사가 미국 기독교의 위기와 미주 지역 온누리 비전교회의 사역방향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권혁빈 목사
(얼바인 온누리교회)

〈미주 교회를 위한 기도제목〉

1. 미국의 영적 위기를 극복하도록
2. 동성결혼 합헌 판결에 의해 교리와 기독교 관련 기관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3. 미국의 다음세대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4. 미국 신학교의 위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뜻하지 않았던 미국으로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온지 벌써 4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OMA(Onnuri Mission Alliance)와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섬기며 해외비전교회의 정체성과 이민자들의 고뇌와 아픔, 이민 목회에 대한 많은 생각과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냈다. 아직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미국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으로 이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다양성의 총화로 불리는 국가답게 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극대화하는 시대정신의 한 가운데에 있다. 사회 곳곳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차별 문제와 총기 사건들, 물질적 풍족함 가운데 암초처럼 자라는 각종 사회 문제는 청교도 정신을 가졌던 국가라는 자부심을 무색하게 한다.

경기 회복세는 약간 있다고 하나, 소규모 비즈니스까지는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금리인상과 앞으로 다가올 불황에 대한 두려움이 내가 대하는 성도들의 삶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다.

동성결혼 합법화 ... 영적 위기에 불붙여 동성애 반대하는 교회와 기관 피해 예상

미주 한인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아무래도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곳의 영적인 분위기이다. 미국에 산다고는 하지만 서부 한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살고 있고, 한인교회라는 특별한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미국의 영적 상황에 대한 판단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 복음주의 교회들이 현재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영적인 위기의식은 매우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꽤나 실질적이기도 하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들에 더 이상 신학생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10년 내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의 절반이 문을 닫을 거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영적 위기에 불을 붙인 것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다. 미국 연방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기폭제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윤리, 정치, 경제 등 사회적이 고도 영적인 충격과 파장을 양산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더욱 우려를 갖게 된다.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는 이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문화적으로 대세를 이루고 있고, 오바마 정부는 계속해서 동성애 옹호 정책을 펴고 있다. 동성애에 반대하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모든 행위를 사회적 편견으로 치부하고, 성의 다양성과 연관된 조치들을 입법화하고 있기에 실제로 기독교 관련 기관이나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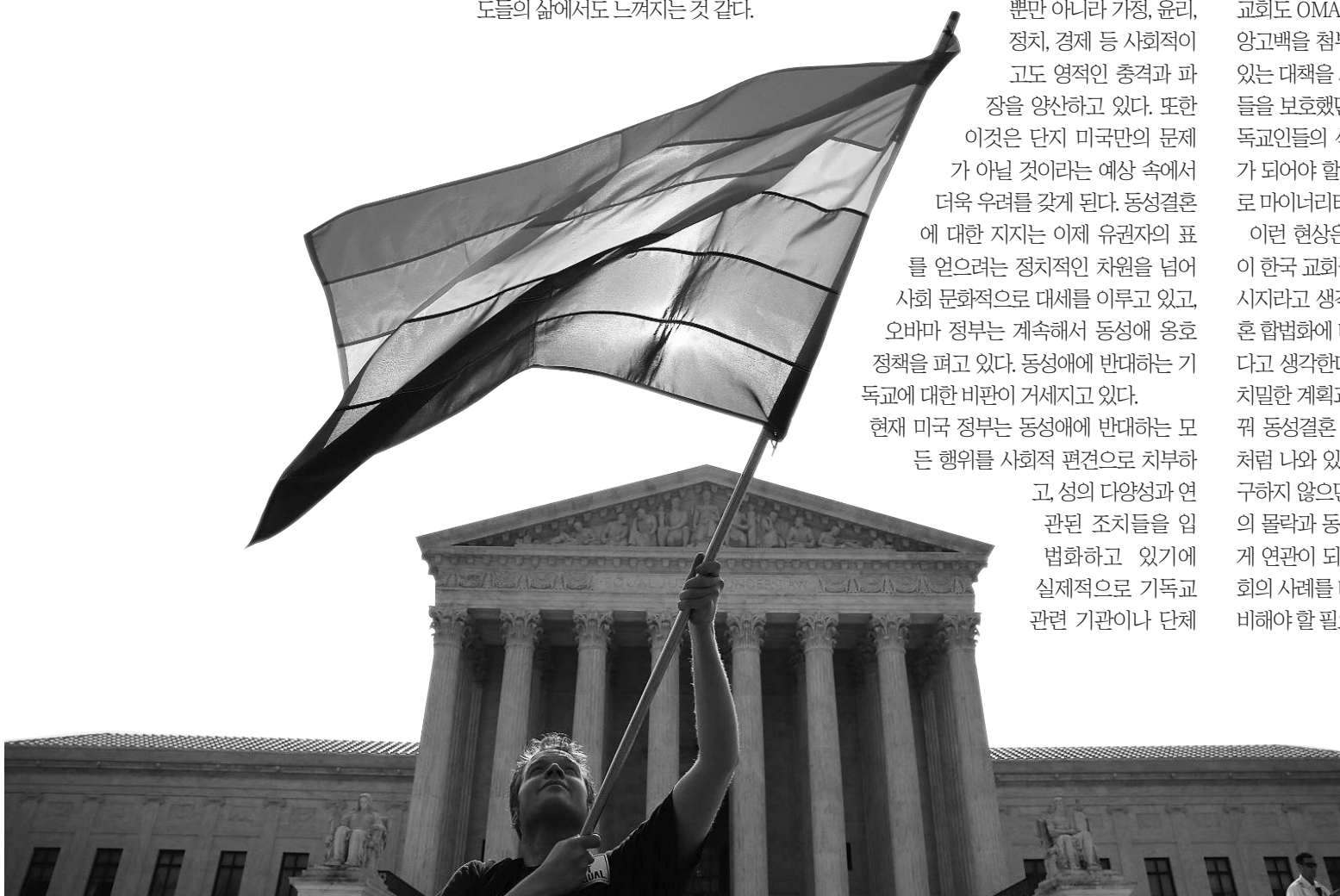
가 앞으로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교회나 기독교 단체들은 앞으로 동성애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와의 계약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 등에 있어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목사가 동성결혼을 주례하지 않거나 혹은 동성결혼식을 위해 교회를 빌려주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미 미군에서는 군종 목사까지 성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을 요구받고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징계를 받고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 대학들은 세금감면 혜택을 잃게 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동성애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학 내의 서클들은 이미 등록이 거부되고 있거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인교회들을 포함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혼란과 고민 중에 놓여 있다. 현재 미주 온누리교회도 OMA 정관(定款)에 가족에 대한 신앙고백을 첨부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전에 동성애자들을 보호했던 차별법이 이제는 역으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야 할 만큼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마이너리티가 되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미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한국 교회들에 주시는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한국 교회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아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동성애자들이 아주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통해서 범조항을 바꿔 동성결혼 합헌을 이끌어냈는지 매뉴얼처럼 나와 있다. 이것을 한국 교회가 잘 연구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위험하다. 교회의 몰락과 동성결혼 합헌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위기는 늘 최고의 기회

미국 교회 위기 ... 동성결혼 합헌, 차세대 교회이탈, 신학교 몰락
한국 교회, 미국 교회 사례 바탕으로 영적 위기에 철저히 대비해야



지난 6월 25일에 열린 뉴욕 게이 퍼레이드 'NYC 프라이드'

한인 2세들의 교회 이탈 현상 가속화 미주 한인교회 미래가 불확실하다

영적인 위기가 가장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또 하나는 다음세대에 대한 것이다. 미국의 다른 교회들은 물론이고, 신앙적 열심이 가장 뜨겁다고 하는 한인교회에서도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는 이미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미주 한인교회들의 존립과 매우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으로부터 이민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한인 2세들의 교회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민교회의 미래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 이것을 흔히 Silent Exodus(조용한 탈출)라고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자란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졸업할 때까지 80%에서 많게는 90%까지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다. 미주 온누리교회들도 이에 대한 신중하고 시급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교회가 가정과 협력하여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차세대에 대한 교회적 관심과 투자를 강화하며, 차세대와 EM(English Ministry)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책임목회제와 OMA 교단화 목회적 한계 극복, 연합·교류 활성화 기대

최근 몇몇 미주 온누리교회들은 현재 담당 목사제를 담임목사제로 바꾸는 이른바 '책임목회제'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계속 제시되어 온 담당목사가 수시로 바뀌므로 인해서 생기는 목회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변화이다. 대상은 미주 13개 중에 앨버틴, 뉴저지, 밴쿠버, 산타모니카, 뉴욕인투를 제외한 8개 교회(LA, 샌디에이고, 괌, 보스턴, 네이퍼빌시카고, 노스시카고, 포틀랜드, 앵커리지)다. 앨버틴, 뉴저지, 밴쿠버 온누리교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교회들로서 서울 온누리교회와 보다 가까운 비전 공유와 소통을 위해 책임목회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산타모니카와 뉴욕인투는 각각 앨버틴 온누리교회의 캠퍼스 교회이다.

시행세칙에 의하면 현재 담당목사가 해당 교회에서 계속 목회하기를 원하는 경우 사역한지 3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개교회는 청빙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인총회를 거쳐 담임목사로 인준하게 된다. 현재까지 앵커리지 온누리교회(박재영 목사), LA 온누리교회(이정영 목사), 네이퍼빌시카고 온누리교회(이중재 목사)가 책임목회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책임목회제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기존 미주 온누리교회 연합기관인 OMA를 그 임무와 체계를 강화하여 '교단(denomination)'으로 만드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OMA가 교단화가 되면 그동안 개교회 차원에서 세워진 장로들이 교단 차원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과 신학적인 통일성을 더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책임목회제를 시행하는 교회들 간의 연합과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교단화에 필요한 bylaw(세칙, 내규)와 article(조항)이 완성되었고, 각 교회들의 동의를 거쳐 최종 등록 과정만을 앞두고 있다. 교단 출범식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교회로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선교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점에 주목

최근 몇 년간 미주 온누리교회들은 각 지역에 속한 지역교회로서 역할을 보다 열정적이고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다. 지역교회들과 함께 동역하고, 연합행사에 참여하고 섬기며, 이웃 교역자들과의 활발한 교제를 통해서 지역 한인교회들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있다.

이를 위해 OMA는 2014년부터 각 비전교회가 지역사회 또는 지역교회를 위한 프로그램

을 기획하고 실행할 경우 격려와 후원 차원으로 매년 2000불씩 지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주 비전교회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껏 다양한 사역과 헌신이 이루어져 왔다.

이웃과 주변 지역에 대한 관심이 다른 다민족 교회들이나 선교 차원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한 비전교회에서는 주변의 히스패닉 교회들의 지도자들을 초청해 온누리교회의 목회철학, 큐티와 일대일 사역을 소개했다. 매우 좋은 반응과 기대가 있었고, 앞으로 그 사역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또한 교회 주변에 있는 대학에 세계 곳곳으로부터 온 학생들을 향한 전도와 선교적 정책도 세워지고 있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사도행전적 교회로서의 사역이 준비되고 있다. 유수한 대학들이 즐비한 보스턴과 시카고, 뉴욕, UCLA를 위한 전략적인 교회 산타모니카, UC Irvine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앨버틴 온누리교회 뿐만 아니라 각지의 미주 온누리교회가 품고 접근할 수 있는 대학들이 근거리 에 자리 잡고 있다.

이로 인해 한인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무슬림 등 선교지에서 온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실제적 선교지'에 대한 전도와 선교가 앞으로의 미주 비전교회들의 비전과 사역이 될 것이다. 비행기 타고 선교지에 직접 가는 것과 비교할 때 더 높은 효율과 많은 참여의 가능성이 있다. 선교지가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재 미주 온누리교회들은 각기 어려운 목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주 비전교회들을 되돌아보면 교회가 내외적으로 많이 성숙했고, 이제 다음 단계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질주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미주의 정치, 사회적인 요소들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목회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을 우려하는 소리들이 많다. 물론 미주 온누리교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위기는 늘 최고의 기회였던 것처럼 이 시대의 어두움과 거친 파도를 'Acts 29'의 영성과 '예수바보행전'의 비전으로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와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더 역동적이고 건강한 교회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다.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이민 사회에서 다음세대를 향해 도약하며 대안적인 이민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미주 온누리교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린다.

교사는 눈높이 맞추고, 귀 기울이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려고 애써야

2016 차세대 교사모집

모든 인간관계에는 경쟁이 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모와 자녀 사이와 스승과 제자 사이가 그렇다. 이 두 관계에서는 경쟁이 존재할 수 없다. 자녀가 잘되면 부모가 즐겁고, 제자가 잘되면 스승이 기쁘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제자가 공부를 잘하고, 자연스레 꿈이 생긴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다. 좋은 교사와 좋은 제자가 만나야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이 전수된다. 여기 좋은 교사들과 좋은 제자들이 있다. 좋은 교사들은 제자들과 소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좋은 제자들은 스승을 닮아가려고 애쓴다. 2016 차세대 교사모집을 앞두고 그들을 만났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지난 부활주일, 미술반 학생들.

차세대가 또 한 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교사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학생들을 더 좋은 방식으로 훈육하려는 노력은 물론 교사들의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있다. 끊임없이 차세대 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제자들을 가슴으로 품는 것은 동일한데 한 가지가 달라졌다.

바로 이미지다. 과거 주일학교 교사들은 교과공부를 가르치는 근엄한 이미지였다면 요즘 차세대 교사들은 학생들과 허물없이 이야기하고 삶을 나누는 포근한 이미지다. 어떻게 하면 제자들과 하나 되어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교사는 곧 멘토라는 이미지가 더 강해졌다. 학생들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미술을 전공한 김지희 성도는 올해로 차세대 교사 10년차다. 10년 동안 차세대 교사로 섬기면서 정말 많은 제자들을 만났다. 그녀가 차세대들과 보낸 10년은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초등학교 5-6학년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었다. 그래서 생

각해 낸 방법은 미술반이었다. 미술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모아 소그룹을 만들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였다. 하지만 학원과 과외로 바쁜 아이들이 매주 토요일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낸 방법이 주일날 소년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공과시간에 모이는 것이었다. 미술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보니 매주 빠지는 학생이 없었다. 한 주 동안 말씀 묵상한 내용이나 설교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했다. 지난 추수감사주일에는 아이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

서빙고 차세대 소년부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내세워 특성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눈술 지도 교사는 눈술 큐티를, 작곡 전공자 교사는 소년부 중창단을, 전 축구 국가대표 출신 교사는 축구부를 개설해 6년째 섬기고 있다.

좋은 교사와 좋은 제자

양재 고등부를 섬기고 있는 정미영 성도는 올해로 차세대 교사 3년차다. 그녀는 전직 교

사 출신이다. 그녀가 차세대 교사로 섬기게 된 계기는 2012년 BDTS(Busines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훈련을 마치면서부터다. BDTS에서 한 강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선교지는 바로 학교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곧장 양재 온누리교회 고등부 교사로 지원했다.

그녀는 2년 동안 고등부를 섬기면서 다양한 아이들을 만났다. 반응이 없는 학생, 단답형으로 답하는 학생, 1년 동안 단 한명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다. 2013년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맡았는데 교사생활에 보람을 느끼게 해준 남학생이 있었다. 어느 날 그 학생에게서 ‘죽고 싶다’는 문자가 왔다. 학교생활과 입시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다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학생을 위해 불철주야 기도했다.

그런데... 입시에 실패했다. 그녀는 그 학생이 방황할까봐 한달음에 달려갔다. “너에게 좋은 부모님과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의 유

산이 있지 않니?”라며 격려하고 기도했다.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고 말하는 그 학생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가고 싶은 대학에 추가 합격이 된 것이었다. 그 학생은 “좋은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입이 닳도록 자랑했다.

매주일 서빙고 신동아소풍 상가 2층 믿음홀에서 찬양소리가 들린다. Y공동체가 예배드리고 있는 소리다. Y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박세라 학생은 내년이면 고3이 된다. 이 학생은 시험을 볼 때마다 많이 쫓긴다. 시험이 두렵고, 긴장된다. 힘이 들 때마다 고등부 담당교사인 박혜진 교사를 찾아가곤 한다. 박혜진 교사는 학생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위로하고 격려한다. 학생들의 고민상담을 자청해서 하고 있다.

박세라 학생은 박혜진 교사를 이렇게 소개했다.

“힘들 때마다 눈높이를 맞춰주고, 귀 기울여 주는 선생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제가 믿음의 눈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해요.”



목회칼럼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

차세대 교사 1명당 아이들 4명이 최적의 인원이다. 사랑부의 경우 일대일 교육이 필요하다. 사랑부는 아이들보다 교사 숫자가 많아야 적합하다. 아이들과 교사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한 최적의 숫자인 셈이다.

차세대 교사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아이들을 사랑해야 한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는 단순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함께 품고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사랑이 많아야 한다.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 이것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건강한 사랑을 표현할 줄 아

는 교사가 필요하다. 사랑이 많다고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은 차세대 교사의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예를 들어 주중에는 차세대 부모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자주 소통하고, 아이들을 영적으로 깨워주고, 성장시켜 줄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

차세대 369명에게 “힘들 때 온누리교회 선생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은 경험에 있는지”를 물었다. 48.1%가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그들 중 47.1%는 고민을 나누는 대상이 “선생님”이라고 답했다. 차세대들은 교사의 품이 따뜻해야 교회도 따뜻한 곳이라고 느낄 수 있다. 차세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교사가 필요

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차세대들과 상담을 해보면 가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차세대의 성장은 가정에서 비롯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부모의 정체성을 아이들이 본받기 때문이다. 교회에 전통이 있듯이 가정에도 있다. 신앙교육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전수하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다. 1차적 교사는 부모이며, 2차적 교사는 교회다.

앞으로 차세대는 계속해서 가정에 도전을 주려고 한다. 그 도전을 주로 수요일어머니기도회에서 주고 있다. 매주 수요일이면 어머니들이 기도의 자리로 모이는데 이제는 원거리

있는 지역도 방문하려고 한다. 지금은 일산에서 기도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노원, 동대문, 분당 등지에서도 수요일어머니기도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성인과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꿈꾸고 있다. 차세대들은 교회의 성찬이나 세례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부모와 차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례를 통해 배우고, 신앙이 전수되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신앙 교육의 1번 타자는 가정과 부모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부모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

이기훈 목사의
개혁신앙의 흔적을 찾아서(4)



이기훈 목사
(성동광진공동체)

프라하에서 루터의 흔적을 찾아가려면 독일의 드레스덴(Dresden)을 거쳐 가게 된다. 드레스덴은 1945년 2월 13일 영미군의 융단 폭격(이때부터 carpet bombing이라는 용어가 생긴)을 받아 도시의 80% 정도가 파괴되었던 곳이다. 이곳에도 개혁신앙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문해볼 필요가 있다. 드레스덴에서는 세 곳을 꼭 찾아가야 한다.

첫 번째 방문해야 할 곳은 도자기 벽화 ‘군주의 행렬(Fuerstenzug, procession of the Dukes)’이다. 군주의 행렬은 1906년, 독일의 유명 도자기 회사 마이센의 도자기 타일 2400개로 만들어진 길이 102m, 높이 8m의 대형 벽화다. 이 벽화에는 작센주를 통치했던 35명의 제후들의 행렬이 연대별로 그려져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제후가 프레드릭(Friedrich D Weise 1486~1525)이다. 그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협력했던 3인방 중 한 명이다. 안후스는 정치적인 뒷받침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루터는 달랐다. 루터가 재직했던 비텐베르크 대학을 설립한 통치자 프레드릭은 루터의 개혁신앙을 지지했을 뿐 아니라, 루터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루터는 가톨릭교

회의 온갖 위협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벽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연도와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그 위에 말을 타고 관광객을 쳐다보고 있는 멋있게 생긴 남자가 프레드릭 제후다. 바울의 사역이 많은 동역자들의 협력으로 이뤄진 것처럼 루터의 개혁도 그를 사랑했던 친구들의 합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방문해야 할 곳은 츠빙거(Der Zwinger) 궁정이다. 이 궁정에는 도자기 박물관과 미술관이 있다. 세계 3대 걸작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파리 루브르 박물관),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라파엘의 ‘성모상’이 꼽히는데, 츠빙거에 그 성모상이 있다. 성모상 밑에 턱을 괴고 있는 어린 두 천사의 얼굴이 앙증맞게 짝이 없다. 어쩌면 성모 그림보다 천사의 얼굴이 더 유명한 듯하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성경이야기를 그린 그림들이 많아서 좋다.

바리새인이 동전 한 닢을 들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마 22:21)을 그린 티티안(Titian)의 The Tribute Money(1516),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습(창 22:1~14)을 그린 안드레아 델 사르토(Andrea del Sarto)의 The Sacrifice of Isaac, 잃어버린 동전 비유(눅 19:8~10)를 그린 도메니코 페티(Domenico Fetti)의 The Parable of the lost coins, 이 외에도 바베탐, 예수님이 눈먼 붕사를 고치는 장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림, 요셉이 바로왕에게 자기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는 그림 등이 있다. 나그네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한 야곱의 얼굴을 주의 깊게 보면 좋다.

세 번째 방문해야 할 곳은 프라우엔 교회



▲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도자기 타일 벽화 ‘군주의 행렬’

(Frauen Kirche)다. 이 교회는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받아 거의 전파(全破)되었다. 당시 교인들은 잔해를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고 한다. 지금도 교회 앞 광장에서는 당시의 잔해 일부를 전시해 놓고 있다. 교회 재건은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1999년 독일 태생 미국 생물학자 귄터 블로벨이 노벨 의학상을 타고 받은 상금을 전액 교회 재건에 헌금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2005년 지금의 모습으로 완전히 복구되었다. 이 교회는 루터의 개혁을 적극 지지했던 교회다. 그가 종종 설교를 한 교회이기도 하다. 지금은 당연히 루터교회이다. 뒤 광장에는 성경책을 들고 서 있는 루터의 동상이 사

람들을 내려다보고 있다.

이 교회는 독일의 통일과도 관계가 깊다. 1982년 2월 13일 통일을 위한 월요기도회를 마치고 광장으로 나온 청년들이 여행의 자유와 선거의 자유를 달라며 촛불시위를 벌였는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 단위의 시위로 확산되었다. 결국 독일이 통일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개혁신앙이 독일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한국 개신교회도 남북통일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평양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질 날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이 글은 이기훈 목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대하고, 기념하며 개혁신앙의 흔적과 의미를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동유럽 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점들을 작성한 것입니다. 10회 연재합니다.



목회칼럼 차제이미 목사(영어예배)

오늘날 성탄절은 거리의 상점이 반짝이는 장식으로 성탄의 시작을 알리는 듯 느껴진다. 교회에서도 성탄절 예배가 마치 연간 행사가 되어버렸다. 영어예배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연합예배(Combined Service)를 드린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찬양을 배워 부모님 앞에 공연하는 것이 성탄절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민해봤다.

미국교회를 섬길 때 일이다. 귀찮을 정도로 가정 중심의 프로그램을 일 년 내내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 내 자녀의 1차 영적양육인은 교역자와 주일학교 교사도 아닌 부모의 몫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장소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아이들이 부모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부모의 모범적 신앙을 보며 예수님의 제자 됨을 배웠다”고 간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 중 하나가 대강절 가족 프로그램(Advent Family Activities)이다. 대강절은 한국 사회에서는 생소하다.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 주현절(Epiphany)인 1월 6일까지 이어지는 절기다. 영어로 ‘어드벤트(Advent)’인데 ‘도착하다, 오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리킨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다. 영어예배는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가족들과 뜻 깊은 시간이 되도록 대강절 가족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몇 가지 준비한 것은 대강절 화환(Wreath)과 양초(Candle) 만들기다. 화환의 녹색 나뭇잎은 ‘끝없는(Never-Ending), 영원한(Eternal)’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상징한다. 미국에서는 성탄절 전까지 매주 하나씩 다른 의미를 가진 초를 켜는 전통이 있다. 4주 전은 보라색 초(소망), 3주 전은 보라색 초(사랑), 2주 전은 핑크색 초(기쁨), 1주 전은 보라색 초(영화), 24일은 예수님 의미를 담은 흰 초를 켜다. 보라색은 왕의 권위와 회개와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이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미국 가정에서 집·교회에 매주 다른 촛불을 켜면서 의미를 묵상했다. 영어예배에서는 종이로 화환과 초를 만들어 성탄의 의미를 부모와 아이들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5일간 사랑의 행동 법칙(25 Days of Acts of Love)을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 이웃에게 좀 더 실질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는 사랑의 행위다. 이것은 가족끼리 의논해 달력에 행동 지침을 적는다. 12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실천할 행동 지침 25가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

- 1일차, 학교에서 외로운 친구에게 카드 보내기.
- 2일차, 경비 아저씨에게 과자와 카드 보내기.
- 3일차, 서울역 노숙자 사역에 가족 모두 동참하기.

부모와 자녀들이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나누고, 삶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영어예배에서는 ‘Advent Family Activities’를 시도해봤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역들을 의도적으로 가족중심의 사역(Family Focused Ministry)으로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가정들이 성탄절을 예수님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찬양만큼 감동적인 고백 없고,

찬양, 주의 아름답고 훌륭한 크게 기리고 드러낸다는 의미다. 찬양만큼 감동적인 고백 없고, 찬양만큼 기쁜 것도 없다면서 조금은 특별한 찬양을 하고 있는 팀들이 있다.

주인공은 온누리 장로합창단과 국악 찬양팀이다. 장로합창단은 지역 교회를 찾아가서 콘서트를 열었고, 국악 찬양팀은 국악과 찬양을 결합시켜 구성지고, 신명나고, 애절한 찬양을 하고 있다.

/ 정현주, 김현준 기자

찾아가는 '온누리장로합창단'

장로합창단, 찾아가는 콘서트
'함께하는 주민 초청 음악회'

지난 21일 여기는 이천 설성감리교회. 30여명 인파의 성도가 고작이던 교회가 오랜만에 들쭉였다. 잘해야 150명 정도 앉을 수 있을까 말까한 교회가 입주의 여지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다. 온누리장로합창단(이하 장로합창단)의 제3회 정기연주회를 보러 온 성도들과 주민들이다.

장광 장로(성우 겸 배우)가 무대에 섰다. 그리고 감동적인 간증이 이어졌다.

“좌절에 빠져 끼니까 걱정해야 했을 때, 모두가 나를 피하고 거부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셨다.”

이어 가수 노사연의 무대가 이어졌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드디어 장로합창단 차례.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장로합창단의 진정 어린 찬양이 회장에 울려 퍼졌다. 설성감리교회 성도는 물론 설성면 주민들, 경찰관, 군인들까지 은혜로운 찬양에 흠뻑 젖었다. 그야말로 감동과 축제 한마당이 었다.

장로들의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행렬

이날은 장로합창단의 제3회 정기연주회 날이다. 온누리장로합창단은 단일 교회 장로들

이 모인 국내 유일의 합창단이다. 가장 나이 어린 56세 정광렬 장로부터 최고령 94세 정윤채 장로까지 면면이 빛나는 팀이다. 평균연령 66세, 노익장을 과시하는 장로합창단은 결성된 지 올해로 3년 됐다. 올해는 예년 정기연주회와 달랐다.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행렬에 더 많은 장로들이 동참했다.

함께하는 주민 초청 음악회. 취지는 좋았는데 시작이 순탄치 않았다. 4월 설성감리교회 답사를 하고 나서 의견이 나뉘었다. 설성감리교회 상황이 생각보다 열악했던 것. 음악회를 할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도 해보자고 마음먹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또 생겼다. 원래 음악회를 하려고 했던 날짜(11월 28일)가 임직예배가 있는 날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다. 부랴부랴 날짜를 바꾸는 문제로 또 한 번 진통을 겪어야 했다.

찬양에 담긴 메시지 '가장 소중한 예수님과 만남'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콘서트여서일까. 이날 음악회에는 큰 은혜와 감동이 가득했다. 하나님은 장로합창단의 마음고생을 위로해 주셨다. 아무리 많아도 1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설성감리교회가 주민들로 넘쳐났다.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음악회가 끝날 때까지 누구하나 자리를 뜨지 않았다. 장로합창단의 찬양이 끝날 때 마다 “아멘”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너나 할 것 없이 박수갈채를 보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다. 바로 우리



장로합창단과 이천 설성감리교회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인생에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다.”

김태영 목사(설성감리교회 담당)의 메시지로 문을 연 음악회가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예수님과 만남’을 주제로 모두 12곡을 찬양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 만남이라는 것을, 예수 믿고 변화되어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찬양을 통해 보여줬다.

교회 합창단이라고 찬송가만 부른 것이 아니었다. 찾아가 함께 하는 콘서트답게 주민들의 취향을 저격했다. 동요 ‘과수원 길’부터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하숙생’ 등 익숙한 노래도 부르면서 흥을 돋웠다. 가수 노사연 집사의 ‘만남’ 열창도 빼놓을 수 없었다. 장로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어깨와 엉덩이를 들쭉여 가며 노래를 불렀다. 마치 어린이처럼 주민들과 함께 즐겼다. 협업도 돋보였다. 온누리교회 도곡침버팀과 서대문공동체 성도들도 힘을 보탰다.

장로합창단의 진심이 통했다. 주민들은 음악회가 끝났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앙코르’를 외쳤다. 장로합창단과 노사연 집사는 주

민들의 환호에 앙코르 곡으로 화답했다. 설성감리교회는 장로합창단에 감사패로 고마움을 전했다.

이천 설성감리교회 김태영 목사는 “이번 음악회는 하나님이 직접 지휘한 음악회가 틀림 없다”면서 기뻐했다.

콘서트에 참석한 주민들도, 장로합창단도 하나같이 벅찬 은혜와 감동을 경험했다. 온누리장로합창단 김종건 장로는 “나름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걱정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습과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했고, 장광 장로는 “그분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성기 장로는 “정말 보람 있는 음악회였다. 장로합창단의 역할은 숭선수범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말했다.

장로합창단의 열정과 섬김이 불쑥 찾아온 겨울 추위를 녹였다. 숭선수범해서 이웃들을 찾아간 장로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청년보다 힘이 넘쳤다.

간증



장 광 장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는 성우다. 라디오 드라마나 외화 더빙 등 수많은 작품에서 목소리로 연기를 하는 직업이다. 나는 슈렉, 미키마우스, 레옹 등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작품들에 출연했다. 성우로서 왕성한 활동을 했다.

나름대로 잘 나가던 어느 날 사업을 했다. 그

런데 사업에 대한 소망과 욕심이 나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진행했던 사업의 실패로 좌절에 빠졌다. 그때 나는 끼니까 걱정해야 했다.

모두가 나를 피하고, 거부해했다. 그렇게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나를 영화로 통해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

영화 ‘도가니’ 오디션을 봤고, 높은 경쟁률

을 뚫고 역할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조명 받게 되었다.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셨다.

나는 그분의 계획을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서, 한 교회를 섬기는 장로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고, 일으켜 세워 주셨다. 그분이 바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다.

찬양만큼 기쁜 것 없다



국악 찬양팀이 장구와 북을 연습하며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신명나는 ‘국악찬양팀’

“국악 찬양 들어보셨나요?”

11월 26일 목요일 저녁, 여기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익숙한 소리가 들렸다. 흥이 절로 나는 장구소리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악기를 연습하고 있는 성도들이 보였다. 그들의 이름은 ‘국악 찬양팀’이다.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들이 흘리는 구슬땀만큼이나 구성지고, 애절하고, 신명나는 국악찬양의 열매가 풍

성하게 맺힐 것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국악 찬양’이라는 이름이 낯설다. 흔히 듣던 찬양팀과 무엇인가 다른 느낌이다. 생소하게 들리지만 온누리교회에 국악 찬양팀이 생긴 역사가 깊다. 온누리교회에 국악 찬양팀이 처음 결성된 것은 1998년도다. 양재 온누리교회 여호수아공동체에서 처음 만들었다. 당시 국악 찬양팀 소속 청년들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아웃리치를 다녔다. 농촌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고민하다 떠올린 것이 바로 국악 찬양이었다.

당시 국악 찬양팀이 ‘길놀이(풍악을 울리면서 가는 행렬)’를 준비해서 농촌 아웃리치를

갔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어르신들이 국악 찬양을 정말 좋아했다. 반응이 얼마나 좋았던지 삼시간에 소문이 났다. 다른 아웃리치팀에서도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한 차례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팀이 끊임없이 공연을 이어갔다. 그렇게 ‘예율림’이라는 국악 찬양팀이 만들어졌다. 이후에는 해외 아웃리치에까지 참가했다. 그러나 팀원들의 사정으로 2005년 이후로는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다시 팀을 꾸렸다. 신현희 팀장이 국악 찬양팀 2기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국악 찬양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다시 시작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1기 멤버였던 박숙희 무용팀장도 같은 마음으로 동참했다. 현재 국악 찬양팀은 사회선교부 소속으로 타악, 가야금, 무용팀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습을 계속해 베트남 다문 화가정 전도집회에서도 공연을 했다. 신현희 팀장은 국악 찬양이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했다. 국악 찬양이 선교 도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국악 찬양팀 또 한 번 비상 꿈꾸다

국악과 찬양을 결합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다. 가야금으로 CCM을 연주하거나 타악팀은 가사를 찬양 가사로 바꾸는 등의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국악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성도들에게 국악 찬양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성인뿐만 아니라 차세대들에게도 국악 찬양을 가르치는 것이 또 하나의 소망이다.

연주나 무용은 몇 차례 연습만으로 공연을 할 수 없다. 1년 이상 꾸준히 연습해야만 공연을 할 수 있다. 국악 찬양팀은 자비량으로 섬겨야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팀원들이 있어 든든하다. 끝까지 국악 찬양을 포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국악 찬양을 듣고 어린이처럼 기뻐하시는 어르신들의 미소 때문이다.

“저희 공연을 보시던 어르신들이 나중에는 악기를 들고 함께 연주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국악 찬양팀에서는 국악에 관심 있고,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아직까지 국악 찬양은 널리 알려져 있는 분야가 아니다. 고정관념이 있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악 찬양팀은 오늘도 국악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고 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문의: 신현희 팀장(010-6281-9121)

간증



박숙희 팀장(무용팀)

전통문화로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나는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 자연스럽게 무용을 전공했다. 그중에서 나는 한국무용을 평생 출 수 있는 춤이라고 생각하고 배웠다. 2000년도에 친구가 ‘예율림’이라는 국악 찬양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한번 가보라고 권유했다. 그곳에서 나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활동도 중요했지만 기도와 말씀이 우선이었던 점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돌아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사역의 자리마다 기쁨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은혜의 장소였다.

연습장소가 없어 지하주차장에서 연습할 때

도 있었지만 행복했다. 환경의 어려움은 걸림돌이 되지 못했다. 그 때문인지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과 지금도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 잘하던, 못하던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의 자리로 달려갔다. 내가 처음 사역했던 곳은 교회가 무너져 임시로 비닐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다. 그 좁은 곳에서 무용을 했던 일이 생각난다.

또 한 번은 지방으로 공연을 갔다. 그곳에 가기 위해 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야 했다. 가는 차 안에서 우리나라에 이런 오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미숙한 실력으로 공연을 선보였다. 공연이 끝나자 8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으셨다. 평생 동안 이런 것은 처음 봤다며 눈물 흘리시던 모습이 잊히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가는 곳마다 은혜와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

지난해 국악 찬양팀 2기가 시작되었을 때 1기들의 활동은 잊힌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아! 그 팀 알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연습했던 모습이 생각나네요”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다. 2기도 1기와 마찬가지로 환경이 좋지 않았다. 연습장소를 구하는 것이 어려웠다. 한 장로님에게 어렵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장로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 “내가 예전에 진 빚을 갚아야겠네요”라고 말씀하셨다. 깜짝 놀라 무슨 뜻인지 여쭙었다. 그 장로님이 양재 온누리교회 새신자예배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팀이 그 예배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다. 연습 장소도 선물로 주셨다.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는 1기 사람들은 기도로 응원해주고 있다. 어려움이 없었던 감사함을 못 느꼈을 것이다. 오히려 부족했기에 하나님께 더욱 매달릴 수 있었다.

요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느냐를 고민하고 있다. 국악과 무용에는 전통적인 요소가 있다 보니 어려운 점도 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하다는 고백을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무용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몸짓을 통해 영광을 드리려고 한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고귀하심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 실력을 키우고 영적으로 무장할 것이다.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다

NGO 더멋진세상이 복구한 네팔 교회 세 곳 헌당예배

NGO 더멋진세상이 지진으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웠다. 지난 24일과 25일 네팔 고르카 지역 교회 세 곳이 다시 세워진 것을 감사하는 헌당예배를 드렸다.

고르카 지역은 지난 4월 15일 발생한 리히터 규모 7.8의 대지진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곳이다. 당시 교회도 처참하게 무너졌다. NGO 더멋진세상은 이곳에서 지진 발생 직후부터 긴급구호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는 공사를 병행했다.

공사시작 10개월 만인 지난 24일과 25일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24일 오전에는 걸랑은혜교회, 오후에는 나레스웨교회, 25일에는 사울리교회에서 헌당예배를 드렸다. 특히 걸랑은혜교회 헌당예배에는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했



복구된 세 곳의 교회 중 하나인 걸랑은혜교회.

다.

헌당예배에 참석한 김창욱 전도사는 “다시 세워진 교회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NGO 더멋진세상은 구호할

동을 펼쳤던 네팔 고레다라 마을에서 무너진 주택 70여 채와 학교, 보건소, 교회 건물을 새로 건축하는 ‘더멋진마을 조성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새가족반 특강 ‘구원관’

서빙고새가족사역팀에서 오늘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관’을 주제로 특강을 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례회에서 오후 1시에 진행된다. 감미향 목사가 강의한다. 올해 새가족으로 등록한 성도들과 구원관을 재정립하려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들을 체계적으로 짚어준다.

문의: 02-3215-3263

온누리 아트비전 ‘12월 특별전’ 개최

온누리 미술인선교회 아트비전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비행전’을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1층 카페와 양재 온누리교회 1층 카페에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회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온누리 아트비전은 미술인들이 예술 문화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세워진 모임이다.

서빙고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꿈터에서, 양재는 경천홀에서 격월로 모임을 갖는다. 그림을 사랑하는 미술인이려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문의: 황혜성 팀장 010-4876-2354

/ 정현주 기자

서초C공동체 남편전도집회 ‘동행’ 개최

50% 긍정적 답변, 3명 예수 영접

서초C공동체 여성순이 남편전도집회 ‘동행’을 개최했다. 지난 19일 양재 온누리교회 온유홀에서 열린 전도집회에는 20여 명의 부부가 참석했다. 참석자 중에 50%가 긍정적인 답변, 3명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남편전도집회 ‘동행’은 서초C공동체 여성순 아내들이 지난 5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기도

한 결실이다. 또한 이번 전도집회를 위해 9월 11일에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을 주제로 여성연합모임을 가졌고, 10월 17일에는 대상자 예비모임을 했다.

이혜자 권사는 “남편을 전도한 것은 기도의 결과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축하합니다 - 11월 세례자

■서빙고

권용희 690311
강동원 650105
김용태 771120
김정호 820128
김지선 790506
서수연 680319
윤수경 731115
윤혜연 830302
이원제 880813
정기령 810124
조영희 760823
최문경 881127
최병엽 870116
▷ 유아
박다은 140610
박대기 최혜경
권이안 140217
권영재 윤나영
김규민 140221
김종대 홍영서
김리안 150514
김형수 윤혜연
김시은 131224
김상철 김정연
김은찬 140419
김영우 김윤리
김화평 150208
김도윤 이미희
박은준 140214

■양재

기애란 590524
김인희 521007
김현정 730806
박영화 720311
오세호 580324
원용범 721126
유경아 710307
이가연 730406
이동호 691124
이은정 850212
이지원 830530
전필수 660503

정희진 770110

▷ 유아
김리안 141125
김성진 조 연
김은유 141228
김형진 박고은
문하준 140601
문석진 이예진
양주원 140612
양정일 김현주
유서연 140419
유주환 이정현
이준열 150510
이 주 장미정
이하규 140706
이정표 안혜민
임승리 141015
임태원 박예지
장하윤 150309
장우석 심영진
최이연 140214
최태영 정주현
황수빈 140429
황준연 강지희
황준오 150619
황은상 정지연

인천

Bald Tsend-Ayush
980113
▷ 유아
이지율 141219
이기춘 강혜은
김규중 140701
김용석 노영아
박제희 141028
박 준 신현정
김지유 131220
김승철 박진용
조하영 150128
조계준 천지영
김하민 140718
김부일 광미영

■특별한초대

유소원 821128
이예지 890120
조한준 830618
▷ 유아
김다울 141115
김대웅 신사랑

■대학청년

요셉
이정범 850128
김형욱 830806

Pole2

윤정아 950321

하늘

김한나 951223
노수민 950427
▷ 임교
강성욱 940203
김민성 971118
심상우 961123

SNS

김나연 860915
문종규 851224
김진홍 881110
이호준 891114
▷ 유아
김태민 150527
김민종 황주안
▷ 임교
김석현 960213
박민아 901221

W

▷ 유아
신환이 140903
신영식 김미선
이하준 141019
이용규 전혜영

제4기 은빛날개 세미나 종강

은퇴와 노년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場

지난 27일 제4기 은빛날개 세미나가 종강했다. 은빛날개 세미나는 은퇴 이후 인생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한 세미나다. 제4기에서는 13명이 수료했다.

은빛날개 세미나는 4주 동안 진행됐다. 은퇴한 성도나 은퇴 후 삶에 관심 있는 30대 이후 성도라면 누구나 들을 수 있다.

은빛날개 세미나에서는 은빛날개사역 개관,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고 정리(Self-reflection),

자신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분야발견(Self-development), 인생을 확장시키는 자리와 새로운 친구관계정립(Friendship) 등에 대한 내용을 배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월, 5월, 9월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은빛날개 세미나 담당 노차형 목사는 “은퇴와 노년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은빛날개 세미나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증



/ 정기숙 권사(고양은평공동체)

은빛날개 세미나에 기대가 크다

기대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은빛날개 세미나의 문을 두드렸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참석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정도로 확신이 없었다.

나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노인복지기관에서 실습을 했다. 그곳에서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었다. 독거노인들의 실태를 보고, 중년을 보내고 있는 나 또한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교회에서도 중년과 노년을 위한 사역을 시작할 때가 온 것 같다. 특히 노년층의 숫자가 청년들보다 많은 교회에서 노년과 은퇴 이후의 삶을 다루는 은빛날개 세미나를 시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은빛날개 센터를 만들어 영적성장을 위한 교육과 세미나는 물론, 재능 나눔, 운동, 봉사, 건강정보 나누기, 쿠티 나눔방, 경제활동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하고 싶다. 나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지역사회와 차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이 은퇴한 이후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많다.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 지혜를 얻고자 한다. 그렇기에 은빛날개 세미나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은빛날개 세미나가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효성그룹, 사랑챔버에 1억 후원

효성그룹이 ‘온누리사랑챔버오페스트라이하 온누리사랑챔버’를 후원한다. 효성그룹은 지난 24일 ‘장애 아동·청소년 음악교육 지원사업 전달식’을 갖고 온누리사랑챔버에게 1년 동안 1억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효성그룹은 지난해부터 사랑챔버를 후원하고 있다. 사랑챔버는 그동안 효

성그룹으로부터 오케스트라 활동에 필요한 악기 및 연주회 개최 비용, 음악 캠프 운영비, 단복 구입, 장학금 등을 후원 받았다.

김명희 권사(학부모 부회장)는 “후원 덕분에 온누리사랑챔버 단원들과 학부모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70기 샤이닝 글로리 참가자 모집

지진 영향을 위로는 ‘샤이닝 글로리’가 70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70기 샤이닝 글로리는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파주제자수양관에서 진행된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회비는 38만원이다.

샤이닝 글로리는 영적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는 고있는 프로그램이다.

문의: 오기현 간사(02-3215-3726)

/ 김현주 기자 khj@onnuri.org

담임목사 특별기고



이재훈 목사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개 두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입장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갈등 그 자체의 심각성보다 더 심각하게 갈등을 확대시키는 입장이다. 갈등의 원인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피는 대신 자신의 왜곡된 감정을 주관적으로 개입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며 외면하거나 도피하는 입장이다.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려하지 않고 서둘러 덮어버리는 것으로 갈등이 해결되었다고 착각하는 현상이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사회운동가 파커 팔머는 <비통한 자를 위한 정치학(원제: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이라는 책에서 긴장과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아 새로운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참된 민주주의의 힘이라는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긴장과 갈등은 결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민주주의의 시작이며 이를 창조적인 에너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긴장과 갈등을 주관

적으로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덮어버리는 마음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져온다. 그래서 파커 팔머가 민주주의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긴장과 갈등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마음의 치유는 믿음을 기초로 한 공동체에서 우선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아 새로운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갈등을 통해 다툼과 분열이 아닌 더 성숙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서로에 대하여 자유롭게 반대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름이 인정되지 않고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공동체가 긴장과 갈등으로 인하여 쇠퇴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리더의 견해에 대하여 무조건적 찬성만을 요구하고 어떤 반대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취급하여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다.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하여 과도한 분노를 품어 공격적인 자세를 가지게 되기 쉽다. 아니면 아예 어떠한 관계형성도 거부하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기도 한다.

대개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예'라고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두려워서이다. 사랑 안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해주기 보다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감추는 두

려움을 따르는 것이다. 겉으로는 '예'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속으로 '아니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도 '아니오'라고 용기 있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더 공동체를 성숙하게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아니오'라는 의견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가 공동체의 성숙을 가져올 수도 있고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결국 마음의 문제이다.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공동체 안에 긴장과 갈등이 유발되지만 그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음이 있다면 솔직하게 '아니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관계가 더 가까워질수록 자유롭게 자신의 솔직한 의견을 표시하며 때로 반대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된다면, 또 반대의견으로 관계가 전혀 손상되지 않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 다할지라도 '아니오'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면, 자신과 가깝지 않고 때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옳은 의견에 가까이 '예'라고 찬성해 줄 수 있는 마음 또한 가지게 될 것이다. 잘못된 정치가 지배하는 공동체에서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의 의견은 '물지마 찬성'이 이루어지고, 가깝지 않고 때로 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의견은 '물지마 반대'가 이루어진다. 민주주의 사회속의 무너진 공동체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반대할 자유가 인정받고 존중히 여겨진다고 해서 저절로 공동체가 성숙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반대하는 이 또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또 다른 반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겸손이 있어야 한다. 결국 긴장과 갈등은 겸손한 마음이 치유하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사람 또한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은 자신의 반대를 절대화하는 것이다. 무서운 교만이다. 자신의 반대 속에 들어 있는 독소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반대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이득이나 고집 때문에 반대하는 지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은 채 그저 반대라는 도그마에 빠져버린 것이다. 자유롭게 반대하는사를 표현하더라도 자신의 의견에 대한 또 다른 반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겸손이다. 겸손의 마음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성숙한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사회는 정치, 교육, 문화, 종교 모든 분야에 있어서 파커 팔머가 제시한 '긴장을 창조적으로 끌어안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대립되는 이슈 이전에 그 이면에 있는 서로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긴장과 갈등에 함몰되는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더욱 용기를 내어 반대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유아세례 간증



/ 아이: 박다운 부: 박대기, 모: 최혜경

모든 것이 은혜

2년 전 잠자리에 든 나는 갑자기 “나를 왜 제한하느냐”라는 소리에 놀라 일어났다. 2008년 2월 미혼이었던 나는 유방암 2기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유방암 수술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사건이었다. 그 후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시작했다.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다. 그로부터 3년 후 교회공동체에서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2012년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내 안에는 바뀌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아팠던 몸이라 아기는 낳을 수 없을 것이다. 혹시 아기를 낳을 수 있다 하더라도 건 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으니 낳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건 강하게 생활하는 나를 보며 아이를 기대했다. 우리가 노산이니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겠냐고 제안했다.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 보자며 병원가기를 회피했다. 그 말은 어찌 보면 믿음의 고백 같지만 사실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말씀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불신했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같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부끄럽고 죄송했다. 회개기도를 했다. ‘갑자기 이 밤에 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아이

를 주시려나’라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9월이 되었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테스트를 해보니 임신이었다. 남편과 함께 눈물 흘리며 감사를 올려드렸다.

임신 초기 며칠간의 하혈로 유산 위기도 있었다. 1, 2차 기형아 검사에서 모두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라는 진단 결과가 나와 양수검사 권유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며 감사를함으로 임신기간을 보냈다.

작년 6월에 사랑스럽고 건강한 딸을 만나게 되었다. 많을 다(多), 은혜 은(恩) ‘모든 것이 은혜’라는 뜻이다. 다은이는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로 예쁘게 자라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은이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은이가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줄 것이다. 다은이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중보기도하며 살 것이다.

■OBC(Onnuri Bible Club) ‘통큰통독’ 수료 간증



/ 박유진 성도

“그래!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사람이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나의 오랜 물음이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면 서스킨 회의 섞인 물음이었다. 조금 성숙해 질까 싶으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나 싶게 나락으로 떨어졌다. 다시 일어섰을까 싶으면 또 곤두박질쳤다. 그런 내가 달라졌다. 이전 같으면 책망했을 법한 사춘기 자녀의 어긋난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또 어느 때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이 샘솟기도 한다. 이룰 수가. 나의 의지가 아니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성경읽기에서 나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것이었다.

이 변화의 시작은 성경읽기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때문이었다. 기도는 특별한 준비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었고, 방언을 길들여 가면서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성경읽기는 작정을 하고 앉아야 가능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어려웠고, 집중해서 읽기에 내 삶이 너무 비뚤었다. 그래서 성경읽기가 어렵게만 느껴졌다. 늘 성경을 사모함으로 즐겨 읽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이번에 OBC ‘통큰통독반’을 시작하면서 아무 때나 성경을 펼쳐들게 되었다. 일주일에 읽어야 할 분량이 많았다. 그래서 버스에서도, 집에서, 때로는 직장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읽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했을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였다. 일주일을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했다. 성경을 연대순으로 읽으면서 같은 말씀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읽을 수 있었다. 풍성하게 말씀을 읽을 수 있어 좋았다.

성경통독을 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배신을 잘하고, 악해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아주시고, 용서하시면서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깊이 느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어찌 내가 감히 주 앞에 설 수 있었겠는가. 아브라함도, 요셉도, 다윗도 애초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 연약한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면서 변화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끄신 사랑의 하나님 덕분에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이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면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 내가 선택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통큰통독반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내 물음에 대답을 할 수 있었다.

“그래!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키신다.”



신앙에세이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야치오 온누리교회)

차세대가 예수님과 만나는 기회를 주자

‘일본에서의 신앙계승’을 주제로 쓴 에세이, 그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차세대들이 그리스도와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죽음을 깨부수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희망을 믿고 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과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과와의 영적인 교제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질병 치료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화해로 인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혹은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다. 무엇이 예수님과와의 만남이라고 명확하게 한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와의 직접적인 교제를 실제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믿음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확장되고 확고해지지 않는다.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는 은혜를 느꼈을 때 비로소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이다.

일본에 성장하고 있는 한 교회가 있다. 그 교회의 예배 스타일은 옛날 방식이다. 딱딱한 스타일이다. 지역 교회와의 교제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진부한 예배를 드리고 있어 ‘과연 젊은이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교회의 훌륭한 점은 바로 다름 아닌 예배에 있다.

그 교회에서는 예배 중에 회개와 신앙고백, 세례의 결단 등의 초대가 매우 행해지고 있다. 그 장소를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고, 각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기에 그 시간에 성령님이 움직이신다. 선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일본에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신앙계승을 위해 하나님께 무언가 특수한 능력을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전도하는 데 특수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수한 능력이나 증거가 없으면 전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담히 전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온전히 주권을 맡겨야 한다는 점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들이 주님께 응답할 시간을 가지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들은 상대를 믿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들이 믿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이야기한다고 해도 본인이 예수님과와의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기술적인 전도법보다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 영적인 응답의 도전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가족과 함께 주님 앞으로 나온 것이 언제인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한 것이 언제인가? 차세대에게 기도의 기회를 빼앗고 있지는 않은가? 그들이 영적인 도전을 계속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힘든 일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다. 다음세대가 영적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긴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다. 그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 15:16).



권사칼럼 이해자 권사(서초C공동체)

나는 요즘 구름 위를 걷고 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나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다. 나는 2004년 하나님을 만났다. 그 때부터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 왔다.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방법으로 남편의 구원을 위해 애를 써왔지만 매번 절망해야 했다.

그러다 우연히 서초C공동체 여성순에서 개최하는 맞춤형전도집회를 준비하게 됐다. 놀라운 기획자 장로님과 기도처를 제공해준 집사님과 함께 시작했다. 6개월 동안 기도모임이 진행됐다. 전도집회를 준비하면서 내 기도는 더욱 구체화되었다. 남편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은 사단의 꾀계임을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을지 생각했다.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지 생각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요 16:33).

그 때부터 기도했다. 남편이 없는 방에 들어가 보혈에 관한 메들리 찬송을 세 번씩 반복해서 불렀다. 그 다음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 내어 사단과 대적했다. 며칠을 그렇게 반복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마음을 더욱 강력하게 주셨다.

“내 남편은 이제 하나님이 아들이 되었다! 우리집의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했다”를 반복해서

외쳤다. 그러자 점차 남편의 강박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내가 기도를 안 하는 날이면 남편은 또 완고해져 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찬양과 믿음의 선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남편이 교회를 절대 안 갈 것 같던 현실이 바뀌기 시작했다. 남편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 보혈 찬송을 부르자 나를 묶고 있던 두려움들이 사라졌고, 기도를 하며 내 안에서 힘이 솟아났다. 믿음으로 선포한 만큼 믿음이 커졌다. 남편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사라졌다. 내 안에 있던 불신앙과 두려움도 없어졌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깨닫고 눈물이 났다.

전도집회 하루 전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교회에서 수고한 여성 순장 다락방장들 남편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한 다는데 함께 갈래요?”

내 말이 끝난 지 1초도 안되어 흔쾌히 승낙했다. 그렇게 내 남편이 서초C공동체 여성 순에서 개최한 맞춤형전도집회 ‘동행’에 참석했다. 나는 전도집회를 하는 내내 기도했다. 남편은 결신 카드를 작성하면서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가기로 약속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사건으로 나는 요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다.

“주께서 내 슬픔이 춤이 되게 하시고 내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시 30:11~12).



장로칼럼 안동혁 장로(이수공동체)

챔버팀은 기적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 중에 소리와 인간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 소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전하는 언어라 생각한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나팔을 만들게 해서 짧게 혹은 길게 소리를 내어 민족을 이동시키셨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악기를 통해 찬양 받기를 원하신다.

음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요즘 나는 과거의 많은 대가들의 음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들을 수 있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 아마도 작곡가가 작곡할 때 자기만의 능력이 아닌 영적인 감동

으로 곡을 썼던 것을 느끼게 된다.

요즘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작은 음악 감상회가 있다. 고음질 음악으로 음악 감상회를 여는 시간이다. 평소 어렵다고 생각되었던 곡들을 더 섬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이해가 되고, 그 음악을 통해서 힐링이 된다. 삶이 바뀌는 일들을 보기도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리를 주셨고, 어떤 음악을 주셨는지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자리다.

나는 전에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없는 소리를 있는 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창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내 역할은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다. 이것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 있다. 바로 챔버팀이다. 챔버팀은 매주 예배에서 찬양자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다른 교회와 달리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악기를 들고 오느라 주차 등의 어려움이 있고, 워낙 바쁜 온누리교회의 사정으로 챔버만의 공간이 없지만 온 맘과 정성으로 최상의 연주에 참여한다.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연주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챔버에는 출석에 대한 아무런 규칙이 없지만 늘 풍성하게 자리를 채운다. 나는 챔버팀을 기적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시고 세워 주셔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있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넉넉히 이깁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마 5:11~12).

이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욕과 핍박을 받지만 하늘에서 상이 큰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은 이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들 안에 새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의 능력이 그들을 넉넉히 이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의 생명으로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만이 이 상황과 핍박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만류했습니다. “그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시다. 만일 그들의 행동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니 그냥 내버려 두시다.” 그리고 예를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드다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신을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4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가 결국 사람들은 흩어져 버리고 다 소멸되지 않았느냐? 또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처음에는 추종하는 것 같다가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다 소멸되어 버리지 않았느냐?”

그는 두 가지 예를 들면서 사도들을 내버려 두자고 했습니다.

니다. 무고하게 죄를 흘리지 말자고 중재를 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말리엘은 매우 멋진 사람입니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사람입니다. 다른 공회원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은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새로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솔로몬의 행각에서 여러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돕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두고 볼 일입니까. 영적인 검증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에 기초한 검증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진정한 새 생명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첫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는지를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이 어떻게 과학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 생명의 역사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기다린 것뿐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둘째, 새 생명의 역사는 그 역사에서 사용되는 수단이 무엇인지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나온 일들은 언제나 조직과 기술과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운동은 조직부터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속 4:2).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부흥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움직임은 그들이 결심하고, 결의하고, 무엇인가 해보자고 한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운동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운동력입니다.

셋째,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지, 심지어 고난도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깁니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처럼 고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로 모이는 모임이라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조직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며, 사도행전적인 새 생명의 역사를 기록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궁금한 창조 과학이야기 3. 노아의 방주



이경호 집사(창조과학회, 인하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창세기 7장에 ‘큰 깊음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의 창이 열려’라고 기록되어 있다. 노아시대의 대홍수는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 대격변임을 설명한다. 지하수의 폭발과 용암분출, 조산운동, 궁창(대기권) 위의 물들이 쏟아지는 사건이다. 이 엄청난 사건에도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안전했을까?

이것은 조선공학적인 측면에서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 우선 방주(Ark)는 ‘네모 상자형의 배’다. 그러나 방주와 배는 차이점이 있다. 첫째, 방주는 배와 달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추진 능력이 없다. 둘째, 방주는 방향을 잡는 키가 없다. 단순히 떠있기만 하는 존재다. 하나님이 왜 파도를 피할 수 있는 멋진 배가 아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원하신 것은 ‘네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방주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 같다. 우리의 구원은 즉,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다.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135m), 폭 50규빗(22.5m), 높이가 30규빗(13.5m)이다. 무게는 21,000톤 정도이고, 고르페나무(개역성경에는 잣나무로 번역됨)로 만들어졌다. 3층 높이의 구조와 1개의 출입문, 환기구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님이 방주의 설계도를 주신 것이다.

그런데 과연 현대 조선공학적인 관점으로 노아의 방주는 안전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필자가 속한 선박전문 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방주의 안전성평가를 의뢰했다. 연구소 실험 시설은 세계적 공인 실험 시설로 과학적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세계적으로 공인된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염려 반, 기대 반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당시 연구는 선박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3가지 관점(현대 선박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을 실험했다. 즉, 구조적 안전성과 복원 안정성, 파랑 안정성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방주 모형을 만들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실제로 제작한 모델을 대형 수조(Model Basin)에 띄워 직접 실험하였다. 실험을 위해 21,000톤의 방주의 크기 배수량을 제한 조건을 뒀다. 길이, 폭, 높이 등을 변형해 13척에 대한 상대 평가를 수행했다.

구조적 안정성은 파도에 따른 하중조건이 바깥에 따라 방주가 부러질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노아의 방주는 구조적으로 매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원성은 오탁이와 같이 파도에 따라 방주가 좌우로 흔들릴 때 원래의 위치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실험이다. 방주는 네모 상자형의 부유체로 복원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할 수밖에 없다. 파랑 안정성은 내항성능으로 방주에 탄 사람과 동물들이 얼마나 쾌적함을 느끼는지에 대한 것이다. 배를 타면 대부분 멀미를 하는데, 방주에 탄 가족과 동물들은 1년 10일 정도를 높은 파

도 속에 살아남아야 했다. 우리는 1시간만 배를 타고 멀미를 하는데 과연 괜찮았을까? 노아의 방주는 여객선 기준보다 훨씬 안전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 파고 30m이상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며, 이론상으로는 43m까지도 가능했다.

방주는 파도에 따라 방주의 선수부를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틀리는 성향을 가져 스스로 환경에 안전하게 적응해 가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로 만들어진 노아의 방주가 현대 과학적으로도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 되었는지를 확인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지 알았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 심판의 현장에서 노이를 구원하신 역사적 사건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며 다시 감격하게 된다.



방주의 안정성 평가 실험 모습.